

남해각 '바다도서관' 책 기증 받아요

☎ 박춘성 기자 | ⌚ 승인 2023.05.31 20:37

관광문화재단, 조성·운영
"여가문화 향유 공간 만들것"



'바다도서관' 조성·운영 예정지인 남해각 모습.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여행자 플랫폼 '남해각'에 '바다도서관'을 조성·운영하기로 하고 도서관에 전시될 도서를 기증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남해여행의 출발점인 남해각의 매력성을 강화하고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공유하며 여가를 즐기고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남해각에 바다도서관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최근 10년 이내 출판된 국내 도서를 기증받을 예정이다.

남해각 바다도서관 조성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오는 11월 30일까지 재단 홈페이지 (www.namhaetour.org) 알림마당 고시공고 게시판 내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namhaegaklib@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기증 도서 표제지 내 기증자의 이름, 기증 날짜 등을 기입하고 남해관광문화재단에서 감사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남해관광문화재단 조영호 본부장은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여가문화를 향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춘성 기자